

전북도내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식 개최

졸업시즌을 맞아 전북도내 각급 불교대학이 졸업식을 잇따라 봉행했다. 금산사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2월 21일 제21기 졸업식을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개최했다.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학장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불교회관 원감 일원 스님, 군산 금강불교대학 학장 은좌사 주지 성우 스님, 김백호 전북신도회 회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창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20일,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립)은 박준근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졸업식 개최하고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리불교대학 졸업식에서 이수원 불자가 포교원장상, 김용암 불자가 금산사 주지상을 수상했다. 한편,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등 전북도내 불교대학은 3개월 과정인 무주불교대학을 제외하고는 1년 과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한 외교사절단 한국불교 체험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16개국 대사 선암사 방문



순천 선암사를 찾아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한 주한 외교사절단.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와 16개국 주한 외국 대사들이 한국 불교 체험을 했다.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2월 21일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과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 100여명, 러시아, 오스트리아, 인도, 헝가리, 브라질 등 주한 16개국 외국 대사 등 120여 명이 선암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발우공양 체험과 사찰법당 등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오전 7시 40분 선암사 적묵당에서 발우공양 체험으로 시작된 행사에 이어 주지 경담 스님과 차담이 열렸다. 주지스님은 차담을 통해 선암사 창건 유래를 비롯해 선암사의 역사와 차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경담 스님은 "선암사는 의천 대각 국사가 송나라 다원 건축기법을 그대로 대입해 창건했다"며 "하늘과 소통하는 독특한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 스님은 "의천 국사 주석 때부터 선암사에서는 뇌원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등 선암사는 다선도량으로서 한국의 차문화사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주지스님과 차담 후 참가자들은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선암사의 문화재를 탐

방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공양시간 내내 주한 외국대사와 가족들에게 직접 통역해 눈길을 끌었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화성 용주사와 수원 봉녕사 등 사찰에서 발우

공양한 경험이 있다"며 "선암사의 음식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야나 파라미오(몰라비아) 씨는 "처음으로 해보는 발우공양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즐거웠다"며 "특히 음식이 건강해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광공사 이재성 국내마케팅 실장은 "선암사에서의 발우공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순천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체험 후 전문가와 일반인, 외국인의 시각을 종합해 관광정책에 반영코자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찰탐방단들은 선암사 방문에 앞서 20일 순천에 도착해 도보와 선박으로 순천만 일대를 탐방하고 인근 생태관에서 순천시 관계자로부터 순천만 생태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전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교사협의회 조영채 회장

불교·우리문화의 소중함 가르칠 터

불교의 미래 동량을 길러내고 있는 전북청소년파라미타 교사협의회 회장에 최근 취임한 조영채 금산중 교감은 "지역불교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만큼은 전국의 어느 지부에 못지않은 성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새해 사업 포부를 밝혔다.

전북 청소년 파라미타에는 1996년 전주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전북 도내에 전주, 군산, 익산, 김제부안, 정읍고창, 무주진안, 남원순창 등 7개 지회와 60여 학교 1200명의 학생회원이 활동 중이다. 전북 청소년파라미타가 안정된 조직으로 발전한 데에는 120여 선생님들의 숨

일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발표한 우리문화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청소년파라미타의 가장 큰 자랑은 매년 금산사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모약축제이다. 행사에는 도내 파라미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열고 음악페스티벌과 댄스경연대회를 통해 자연과의 친화와 일체감,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비, 사회의 관계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로 노력하고 있다. 모약축제는 1997년 작은 백일장으로 시작돼 지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조영채 회장

또, 가을에 선암사에서 개최하는 선암문화제 청소년 놀이마당에도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조영채 회장은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의 성패는 학교장의 협력과 지도교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매월 2회 이상 문화제 지킴이 활동과 연수를 통해 지도교사들의 자기개발과 신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회장은 청소년들과 함께

원주 송광사 부설 송광정심원 등 불우시설방문,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활동, 자연보호 활동, 청소년 하계캠프, 문화제 주변 청소년활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 회장은 "장기 문화답사와 사찰순례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과 교양을 강화하고 수련회와 산사체험, 해외문화 답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는 교법사로서 활동을 이어오며 2년간의 전국교법사단 부단장과 4년에 걸친 전북파라미타 사무국장 소임을 수행하며 전북파라미타의 기반을 닦고 성장하는데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기원

전남 4본사협, 도정발전 법회



2월 23일 봉행된 전남도정발전기원법회 모습.

전남 지역 불교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남 불교 중흥을 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전남4본사 주지협의회(회장 영조, 송광사 주지)는 2월 23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전남도정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2010년 개최되는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돼, 전남 지역 4개 교구본사 소속 사찰과 선암사, 신행단체지도자 등 350여 명

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보선 스님은 법에서 "자기 직책에 따른 직분 수행을 정확히 해야 세상이 질서가 서고 편안해진다"며 "세간과 출가 수행자가 직책에 따른 직분을 정확히 수행하는 전남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악재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원봉사자들 위한 나눔의 장 열어

자비신행회, 나눔의 행사 진행

광주 사회복지단체들의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2월 26일 자비신행회 대강당에서 '아름다운 자비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자비신행회는 2009년 사업을 평가하고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나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자비신행회 회주 현장 스님(지장왕사 주지, 정원재(화엄학림 학장),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다.

"자비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2010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등록된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인 기명자, 박광하, 정옥례 씨 등이 골드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500시간 이상 활동한 실버메달에는 강옥실, 김미숙, 김숙자,



자비신행회가 봉행한 '아름다운 자비 나눔의 날'에서 이사님들이 축하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김영숙, 김운순, 백기해, 성순, 정성순, 정순금, 장용운, 정윤남 등이 각각 수상했으며,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그린메달에는 김영숙, 나춘자, 박진옥, 박형자, 오향애, 원정순, 위성희, 윤희순, 이준순, 정영자, 정희원 강옥실, 김미숙, 김숙자, 김영숙, 김운순, 백기해, 오성순, 정성순, 정순금, 장용운, 정윤남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말벗지원, 어르신 식당, 심심이 반 밥차, 호스피스, 청소년 상담과 공부방 등 불교복지사업과 화엄학림, 차

문화나눔사업, 빛고을불교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단체이다.

이에 앞선 25일, 생령나눔실천 광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광주 동구 소재 가미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 업무 결산과 2010년에 대한 행사계획을 밝혔다.

생령나눔은 23일에는 광주 주월동연화사 반야유치원(원장 지원스님)에서 원생 50명, 반야유치원 학부모 140여명, 유상호 홍보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돼지저금통' 점담식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산 중앙역 2번출구 무무사는 278평의 대형도심지 포교당입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무 무 사

불자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고 소원성취도량 무무사 주지 일우스님은 불자들의 어렵고 힘들때 그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걸의 방향을 알려 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이라면 무무사로 발길을 옮겨서 일우스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지혜와 실천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무무사는?

무무사안산포교당은 수도권인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78평의 대규모 법당을 갖춘 불자님들 마음의 안식처로 행복의 문을 여는 국내유일 현대식포교당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원인조차도 모른 채 고통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주지 일우스님이 부처님 품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고통의 근본뿌리를 찾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소원성취도량 무무사는 불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길을 헤쳐나 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방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시거나, 하시는 일마다 실패하시는 분, 원인을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발길을 옮겨 일우스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지혜와 실천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무무사에서는 특별제작한 위대 인등 영가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얻고 가정이 화평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부처님전에 기도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무무사에서 올래해 孝道(효도)는 해로 정하여 조상님을 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패는 특별제작한 만년위패이며 위패와 인등이 하나가 된 영가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점음 : 위패 1회 10만원

· 사업이 안되시는 분, · 하시는 일마다 실패하시는 분, ·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 · 가정불화가 잦은 분, · 자녀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분, 기타 고통과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은 무무사 주지 스님과 상담하시면서 틀림없이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무무사는 안산시 최고의 전법도량 도심사찰입니다. 전화로 사주를 풀어달라는 요청은 절대 하지마십시오. 법회 · 불공시간에는 전화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무사 법회안내

- 새벽예불 매일 오전 4시~5시30분(관음정근 15분)
- 사시불공 매일 오전 10시~12시
- 저녁예불 매일 오후 5시30분~6시30분
- 초하루법회(신중기도)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 관음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신바람 나는 삶 무무사 해동불교 불자대학 안내

무무사에서는 '신바람 나는 삶'을 주제로 불교교리 강의를 통해 불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우스님의 불교강의는 타 불교대학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20년 동안 불교교리를 강의해 오신 일우스님의 강의 그 자체가 확실하게 다르며 스님의 구수한 불교강의는 불교계에서 인기있는 강사로 통합니다.

일우 스님의 불교교리도 교과서 내용에 의한 각본대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화 시켜서 그 지혜를 불자님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불교 강의를 하는 불교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불교대학을 개강을 시작한 이래 불자님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데, 일우스님께서는 불자님들이 불교강의를 들으면서 일그러진 모습이 밝아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발길을 무무사로 향하시어 주지 일우스님의 체계화된 불교강의를 통해 삶을 신바람 삼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강의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무 무 사 대표전화 (031)487-3117



무무사에서 영가 천도제를 올리는 모습